

甘草의 調和諸藥 효능에 대한 고찰

¹韓醫學古典研究所 博士後研究員 · ²慶熙大學校 人文學研究院 研究教授 · ³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學部生
신상원^{1*} · 윤은경^{1,2} · 조소형³ · 황지현³

A Study on the ‘Harmonizing All Medicinals’ Property of Gancao

Shin Sang-won^{1*} · Yoon Eunkyung^{1,2} · Jo Sohyung³ · Hwang Jihyun³

¹Post-doctoral Researcher at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²Research professor at Kyunghee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ities

³Undergraduate at Kyunghee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ities

Objectives : To examine the meaning of ‘harmonizing all medicinals(調和諸藥)’ of Gancao’s property to grasp its essence which would further lead to better understanding of formula composition where Gancao is both included and excluded.

Methods : Contents on Gancao from previous texts were analyzed and integrated with basic descriptions on qi and flavor, shape and colour, origin, name, etc., to form a single Xiang(象) or image. Further discussion was developed from this point in a way to better understand the harmonizing property of Gancao.

Results & Conclusions : Gancao’s ‘harmonizing all medicinals’ property is achieved through its ‘mitigate urgency’ function. The meaning of ‘harmonizing all medicinals’ c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both mitigating the whole formula and mitigating each medicinal ingredient. First, Gancao’s function of mitigating the whole formula is to mediate conflict that occurs from difference in property among each ingredient where each medicinal’s property remains intact to perform its effects soundly. Second, to mitigate each medicinal ingredient is to balance the effects of severely biased medicinals to obtain desired effects. Both approaches are same in essence in that they mitigate urgency to achieve the original goal. Gancao’s ‘harmonizing all medicinals’ is to arbitrate others, which sets Gancao apart from other ingredients to function at a more basal level.

Key words : Gancao(甘草), harmonize all medicinals(調和諸藥), mitigate urgency(緩其急), sweet and neutral(甘平), detoxification(解毒)

* Corresponding Author : Shin Sang-won.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Tel : +82-2-961-9183 E-mail : rulr@nate.com

Received(January 30, 2020), Revised(February 5, 2020), Accepted(February 5, 2020)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序論

甘草는 『傷寒論』의 전체 113方 가운데 무려 70方에서 사용되었으며¹⁾, 『傷寒論』 이래 한의학 처방에서甘草를 활용한 처방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甘草의 범용성은 분명 다른 약물과 구별되는甘草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甘草 활용의 의미를 調和諸藥이라는 효능으로 규정하고 인식해왔다.

調和諸藥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수한 성격의 효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효능은 어떠한 病證의 치료에서 藥物이 효험을 나타내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調和諸藥이라는 말이 나타내는 표면적인 의미에는 病證과의 관련성이 보이지 않아 이 효능이 수행하는 명확한 임상적 실질을 찾기 어렵다. 또, '調和'라는 말에는 그 자체로 '전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諸藥'에도 '범용'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 하나의 藥物의 효능이라고 보기에 다소 광범위한 의미를 나타낸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의 본초의 특징을 설명하는 개념임과 동시에, 처방 조성의 규율이라는 방제학적인 의미를 함께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래서 調和諸藥은 그 실체를 인식하기 어려운 미묘함과 범용성에 따르는 복잡함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調和諸藥의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그 개념을 밝히려는 연구의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唐迎雪는甘草의 調和諸藥을 '緩和藥性, 雙向調節, 監制藥毒, 矯味調味'의 4가지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²⁾. 徐大鵬은 調和諸藥 중 '諸藥'은 配伍를, '調和'는 配伍를 강화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調和諸藥의 정의는 '협조적 방식을 통해 처방 중의 약물 배율을 강화시켜 약효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이를 다시 서양 의학의 增效劑 개념에 합치된다는 설명으로 종합하였다³⁾. 그러나 이것은 調和諸藥이 나타내는 임상적

효용을 부연한 것일 뿐 調和諸藥의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은 아니다. 李成義는 調和諸藥과 解毒에 대해 현대 과학적 방법론으로 해당 작용을 이해하고자 하였는데,甘草의 작용이 부신피질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한의학적 해석은 제시하지 못하였다⁴⁾.

楊柏燦 등은 調和諸藥에 대해 여러 편의 논저를 제출하였다. 2012년甘草 調和諸藥의 藥物의 성능에 대한 적용⁵⁾과 药效에 대한 적용⁶⁾에 대한 분석으로 주제를 나누어 2편의 논저를 연재하였으며, 2013년에는甘草 調和諸藥을 이루는 인자들을 상세히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⁷⁾. 그의 연구에서는 '調和'의 語義를 보다 심도있게 해석하고자 하였고, 調和諸藥이 적용되는 사례들을 다방면으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많은 실례를 통해 증빙하여, 調和諸藥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분석적인 논의를 충실히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調和諸藥의 적용에 관련된 내용을 분류하는 데에 그칠 뿐 이러한 작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그러한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까닭, 기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전체적인甘草의 象에 관련된 調和諸藥의 의미⁸⁾를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이로 볼 때, 기존의甘草 調和諸藥에 대한 연구는 調和諸藥의 실질적인 의미를甘草의 전체적인 象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調和諸藥의 개별적인 용례를 분류, 나열하는 결과에 그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방법론적으로甘草의 性味, 歸經, 기타 효능 등 한의학에서 본초를

作用机理如同西药的增效剂, 是前人为提高方剂疗效而独具匠心设计的”

1) 王松, 郭晓东. 《伤寒论》中部分方剂不用甘草原因探究. 湖南中医杂志. 2015. 31(2). p.110.
 2) 唐迎雪. 淺談甘草的調和性能. 荷澤醫專學報. 1990. 2(2).
 3) 徐大鵬. 對方劑學調和諸藥概念內涵的探討. 北京中醫雜誌. 1993. 6. “调和诸药, 是指具有通过协调的方式来加强方药物间的配伍, 以提高疗效的一类药物.”, “总之调和诸药的

4) 李成義. 甘草“和諸藥, 解百毒”辨析. 甘肅中醫. 1996. 9(2). “另外, 现代药理学研究表明甘草具有肾上腺皮质激素样作用.”
 5) 楊柏燦, 方瑜. 甘草在調和藥物性能中的應用. 上海中醫藥雜誌. 2012. 46(6).
 6) 楊柏燦, 潘穎宜. 甘草在調和藥效中的應用 - 甘草調和實質探析之二-. 中藥與臨床. 2012. 3(2).
 7) 楊柏燦, 潘穎宜. 甘草“調和”的影響因素探析. 中成藥. 2013. 35(1).
 8) 性味, 形色, 產地, 生장사, 命名, 歸經, 機能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甘草라는 약물의 목적, 의미등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논하는 기본적인 논법을 바탕으로甘草의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선행되지 않은 채 임상 용례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은 데에 있다고 생각된다.

본초의 효능이라는 것은 氣味, 形色, 產地, 命名 등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전체적인 象이 개별적인 임상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다양한 임상 상황 속에서 역사적으로 여러 醫家, 文獻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調和諸藥도 그 가운데 하나로, 모든 본초서에서 동일하게 언급된 것이 아니라 표현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단지 표현형의 차이가 아니라 그 실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낸다. 따라서 그 논의를 따라 調和諸藥의 의미를 밝힌다면甘草의 象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향후甘草 적용례의 분석을 위주로 하는 추가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 이는甘草의 효능을 개별 성분으로 환원시키는 근래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며, 임상에서 기존의 처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 加減 또는 創方을 할 때에도 유의미한 지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문헌에서 언급한甘草의 전체적인 모습과 調和諸藥에 대한 인식의 차이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調和諸藥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甘草의 調和諸藥이 실제로 어떠한 목표를 지니며 어떠한 의미를 갖는 작용인지 그 실질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II. 本論

1. 甘草의 調和諸藥에 대한 주요 문헌의 언급

『名醫別錄』 “解百藥毒，爲九土之精，安和七十二種石，一千二百種草。一名蜜甘，一名美草，一名蜜草，一名落草。”⁹⁾

9) 陶弘景 編. 尙志鈞, 尙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206.

『本草經集注』에 수록된 『名醫別錄』에서는甘草의 解百藥毒을 언급하였으며, 九土의 精으로서 각종 毒을 ‘安和’한다고 하였다.

“安和七十二種石，一千二百種草”의 ‘安’은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여러 藥物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어 자신의 성질을 온화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甘草의 ‘安和’ 작용은甘草가 土의 정미로운 德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위 문장의 맥락에서 볼 때, 解毒은 ‘安和’의 작용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¹⁰⁾. 이처럼 초기에는 解毒의 작용과 藥物을 安和시키는 작용을 엄격히 구분짓지 않고 상호 간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本草經集注』 “此草最爲衆藥之主，經方少不用者，猶如香中有沈香也。國老即帝師之稱，雖非君，爲君所宗，是以能安和草石而解諸毒也。”¹¹⁾

『本草經集注』에서는甘草가 木 藥물의 主가 된다고 하였으며 經方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가 적다고 하였다. 많은 처방에 활용되었음을 강조한 것을 통해甘草가 특수한 용례에 국한되지 않으며 처방의 구성 자체에 필수적인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甘草의 별칭인 ‘國老’가 황제의 스승의 뜻으로서, 임금은 아니지만 임금이 으뜸으로 여기는 바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甘草의 작용이 직접적으로 모든 藥物을 지배하고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甘草의 성질과 관련하여 “能安和草石而解諸毒”할 수 있다고 하여 安和시키는 것과 解毒의 작용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도 調和라는 표현보다 ‘安和’라는 표현을 썼으며, 이것이 解毒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湯液本草』에서는

10) 이후 『藥性論』에서는 이 문장을 부연하여 ‘毒’임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治’, 解한다고 하였다. (“治七十二種乳石毒，解一千二百般草木毒”)

11) 陶弘景 編. 尙志鈞, 尙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206.

이 내용을 지적하여 調和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설하였다¹²⁾.

『藥性論』 “甄權曰，諸藥中甘草爲君，治七十二種乳石毒，解一千二百般草木毒，調和衆藥有功，故有國老之號。”¹³⁾

『本草綱目』에 실려있는 甄權(『藥性論』)의 문장에 따르면, 甘草는 君主가 되어 “治七十二種乳石毒，解一千二百般草木毒”한다고 하였다. 이 문장은 대체로 『名醫別錄』의 문장을 따라 부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別錄』에서 말한 ‘安和’의 작용이 ‘解百藥毒’과 매우 깊이 관련된 작용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藥을 調和시켜 功을 세우도록 하여 ‘國老’라는 칭호가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역시 解毒과 調和의 작용을 이어서 제시하였으며, 調和衆藥의 목적은 藥物들이 저마다의 功效를 거두도록 하는 데에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醫學啓源』 <藥類法象·甘草> “調和諸藥相協，共爲力而不爭，性緩，善解諸急，故有國老之稱。主治秘要云，……其用有五，和中一也。補陽氣二也。調諸藥三也。能解其太過四也。去寒邪五也。腹脹則忌之。”¹⁴⁾

『醫學啓源』에서는 調和諸藥을 통해 藥物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전체적인 목표를 향해 함께 힘을 모으는 “相協，共爲力而不爭”을 말하였다. 이어서 甘草의 성질이 緩하므로 모든 ‘急’의 상황을 해소시켜준다고 하였다. 크게 보면 諸藥의 ‘相爭’도 ‘諸急’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調和諸藥의 작용도 甘草의 性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能解

其太過”라고 하였는데 ‘太過’는 氣의 흐름이 항진된 상태를 폭넓게 지칭하는 것으로 急의 의미와도 통하며 藥物의 작용이 太過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湯液本草』 <東垣先生 用藥心法> “凡用純寒純熱藥，必用甘草，以緩其力也，寒熱相雜，亦用甘草，調和其性也。”¹⁵⁾

『湯液本草』 <東垣先生 用藥心法>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설명했는데, ‘緩其力’과 ‘調和其性’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순수한 寒熱의 성질을 가진 藥물(개별 藥物의 藥力)에는 그 藥力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활용하며, 寒熱이 相雜된 경우(진체 처방을 구성하는 藥物들 각각의 속성)에 甘草를 사용하여 그 성질을 調和시킨다고 하였다. 단순히 藥物이 작용하는 힘을 조절하는 문제와 다양한 藥물들의 개별적 속성을 調和시키는 문제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인식한 것이다.

『湯液本草』 <草部·甘草> “象云 …… 和諸藥，相協而不爭，性緩善解諸急，故名國老。…… 心云，熱藥用之緩其熱，寒藥用之緩其寒。經曰，甘以緩之。…… 寒熱皆用，調和藥性，使不相悖。”¹⁶⁾

“或問，附子理中，調胃承氣，皆用甘草者，如何是調和之意。答曰，附子理中用甘草，恐其僭上也，調胃承氣用甘草，恐其速下也，二藥用之，非和也，皆緩也。小柴胡，有柴胡黃芩之寒，人參半夏之溫，其中用甘草者，則有調和之意。”¹⁷⁾

또, 『湯液本草』에서는 『醫學啓源』의 설명을 이어받아 ‘相協而不爭’과 ‘性緩善解諸急’을 강조하였다.

12) 盛增秀 主編. 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2. “本草謂，安和七十二種石，一千二百種草，名爲國老，雖非君而爲君所宗，所以能安和草石而解諸毒也，于此可見調和之意。”

13) 李時珍 著. 本草綱目(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691.

14)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4. pp.54-55.

15) 盛增秀 主編. 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2.

16) 盛增秀 主編. 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2.

17) 盛增秀 主編. 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2.

그리고 “心云” 이하로는 앞서 말한 <東垣先生 用藥心法>의 문장을 덧붙였는데, 개별 藥物의 寒熱의 세력을 緩和시키는 문제와 전체 처방을 구성하는 藥物들의 性を 調和시키는 문제를 역시 구분하였다. 이어서 『傷寒論』에 활용된 甘草의 구체적인 용례에 대해서도 ‘緩’과 ‘調和’의 의미를 엄격하게 구별해 제시하였다¹⁸⁾.

『此事難知』 “甘草(能緩裏急, 調和在內.)”¹⁹⁾, 『赤水玄珠』 “甘草(能緩裏急, 調和諸藥)”²⁰⁾

『此事難知』 <易老解利法>과 『赤水玄珠』 <易老九味羌活湯解利法>에는 張元素의 九味羌活湯에 대한 해설이 실려 있다.

『此事難知』에서는 ‘調和함이 안에 있다’고 하여 명확히 調和諸藥을 언급하지 않고 주로 내부의 氣를 調和시키는 역할을 설명했는데, 이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赤水玄珠』에서는 調和諸藥을 명확히 언급하면서 九味羌活湯에서의 甘草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내부의 氣를 調和시키는 甘草의 작용과 처방 안에서 諸藥의 개별적 속성을 조화시키는 작용이 무관하지 않음을 방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통적으로 裏氣의 急을 緩和시키는 작용을 먼저 언급한 것으로 볼 때, 裏氣를 緩和시켜 表裏를 소통시키는 것이 調和의 전제가 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本草綱目』 “時珍曰, 甘草外赤中黃, 色兼坤離. 味厚氣薄, 資全土德. 協和群品, 有元老之功, 普治百邪, 得王道之化, 贊帝力

而人不知, 斂神功而已不與, 可謂藥中之良相也.”²¹⁾

『本草綱目』에서는 길은 붉고 속은 누런 甘草의 色을 근거로 甘草가 坤, 離의 象을 겸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心, 脾에 관련된 것으로 본 것이며, 味厚氣薄하여 온전한 土德이 바탕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다른 약물들을 調和시켜 元老의 공이 있다고 하였다. 황제를 도와 신묘한 공을 거두면서도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재상의 모습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이것도 또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甘草 調和의 특징을 보여주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甘草에 대한 國老라는 象이 調和諸藥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本草乘雅半偈』 “先人云, 甘具生成, 路通能所, 草從柔化, 和協衆情. 又云, 和具四義, 一合, 二純, 三分明, 四接續, 甘草四德備焉.”²²⁾

『本草乘雅半偈』에서는 ‘甘草’라는 命名을 ‘甘’과 ‘草’로 분해하여 각각의 의미를 해명하여 甘草의 전체적인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甘草의 ‘甘’은 甘味로서 生成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露草’ 및 ‘靈通’이라는 甘草의 異名이 지닌 소통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草’는 ‘부드러움’의 성질²³⁾을 가지고 있어 이를 따라 변화하는데, 甘草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여러 藥物들의 性情이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한다고 하였다. ‘생성’과 ‘소통’, ‘부드러움’을 제시한 것은 土의 속성을 통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성질을 통해 調和諸藥을 설명한 것이 특징적이다.

和의 뜻에 대해서는 합일[合], 순수함[純], 분명

18) 그러나 큰 틀에서 바라본다면 두 가지 모두 甘草의 調和 작용이 적용되는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本草經集注』의 “能安和草石而解諸毒”에 대해 ‘調和’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것을 볼 때, 『湯液本草』에서도 개별 藥物의 安和 및 解毒 작용에 대해 큰 틀에서 調和의 의미를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19)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13.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88.

20) 韓學杰, 張印生 主編, 孫一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92.

21) 李時珍 著. 本草綱目(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691.

22) 盧之頤. 本草乘雅半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4.

23) 甘草는 木本 식물로서 나무의 성질을 가졌음에도 본초 분류 상 草部에 속하는데, 나무임에도 이러한 유연한 성질을 가진 것에 초점을 둔 설명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함[分明], 접속[接續]의 네 가지를 들었는데 甘草가 이 네 가지 德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甘草의 '습'은 藥物들이 하나로 합일되도록 하는 것을, '純'은 私利私慾이 없는 것을, '分明'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接續'은 각 藥物이 지닌 속성과 장점을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性情을 지닌 여러 藥物들이 각각의 性情을 순화, 소통하여 調和시키는 역할을 甘草가 수행함을 설명한 것이다.

『本草備要』“入和劑則補益，入汗劑則解肌，入涼劑則瀉邪熱，入峻劑則緩正氣，入潤劑則養陰血，能協和諸藥，使之不爭。”²⁴⁾

『本草備要』에서는 甘草가 和劑, 汗劑, 涼劑, 峻劑, 潤劑 등 각종 목적에 따라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언급하며 ‘協和諸藥’을 설명하였으며, 이로써 藥物 간의 갈등[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는 감초가 처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약물들이 協和하게 됨을 설명한 것이다.

『本草述鉤元』“甘草獨以甘擅名，別錄謂其爲九土之精，能治七十二種乳石毒，解千二百般草木毒，是一和足以概衆美矣。第就而之中，其功有緩，而緩之中，其功又有瀉，就緩瀉之中，其功更有補也。”²⁵⁾

『本草述鉤元』에서는 『名醫別錄』의 문장을 인용하고 이것을 ‘和’의 의미로 규정하였다. ‘和’라는 하나의 德은 여러 가지의 미덕을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선 調和의 가운데에 ‘緩’이 있으며, 그 가운데에 또한 ‘瀉’가 있고, 그 가운데에 또한 ‘補’가 있다고 하였다. 즉, 甘草의 調和 작용의 실질은 ‘緩’이라고 할 수 있으며, ‘緩’은 ‘補’, ‘瀉’의 양면을 겸

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緩’은 단순히 甘味가 氣의 흐름을 느슨하게 만드는 기능적인 緩의 의미가 아닌, 補瀉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보다 넓은 의미의 ‘緩’이라 할 수 있다.

『藥徵』“陶弘景曰，此草最爲衆藥之主，孫思邈曰，解百藥之毒，甄權曰，諸藥中甘草爲君，治七十二種金石毒，解一千二百般草木毒，調和衆藥有功。嗚呼此說一出，而天下無復知甘草之本功。若從三子之說，則諸凡解毒，唯須此一味而足矣。……不可謂衆藥之主也，亦可以見已。……若解其毒，何功之有。”²⁶⁾

『藥徵』에서는 『本草經集注』와 『千金要方』, 『藥性論』에서 말한 甘草의 解毒 및 調和諸藥 작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우선 甘草가 君主와 같은 독보적인 지위로서 다른 藥物과 구별되는 차원의 작용을 한다고 인식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또 甘草가 모든 藥物을 解毒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나아가 解毒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는데, 毒은 곧 藥物의 治病 능력을 의미하므로 모든 藥의 毒을 해소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비판은 調和諸藥에 대한 일반적인 의문을 보여준다. 한 가지는 모든 藥物을 포괄하는 調和諸藥이라는 말과 같이 과연 甘草가 다른 약물에 비해 차별화된 층위에서 작용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며, 또 한 가지는 이와 함께 解毒 및 調和諸藥이 단순히 각 藥物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러한 비판은 甘草가 독자적으로 모든 약물의 中毒을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사실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그 문제의식을 수궁할 수 있으며, ‘解百藥毒’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이는 調和諸藥의 실질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24) 汪昂 原著, 張一昕 点校. 本草備要. 北京. 人民軍醫出版社. 2007. p.7.

25) 楊時泰 輯. 本草述鉤元. 上海. 科技衛生出版社. 1958. p.84.

26) 吉益東洞 著. 이정환, 정창현 역. 藥徵. 서울. 청흥. 2007. p.110.

표 1. 고찰 문헌에 나타난 調和諸藥 관련 표현

문헌	調和諸藥 관련 표현
『名醫別錄』	“安和七十二種石，一千二百種草”
『本草經集註』	“能安和草石而解諸毒”
『藥性論』	“調和衆藥有功”
『醫學啓源』	“調和諸藥相協，共爲力而不爭，性緩，善解諸急” “調諸藥三也，能解其太過四也”
『湯液本草』	“調和其性” “和諸藥，相協而不爭” “調和藥性，使不相悖”
『此事難知』	“調和諸藥”
『本草綱目』	“協和群品”
『本草乘雅半偈』	“和協衆情”
『本草備要』	“協和諸藥，使之不爭”

이상으로 고찰한 문헌들에 나타난 調和諸藥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표 1.) 초기 문헌인 『名醫別錄』, 『本草經集註』에서는 ‘安和’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藥性論』에서부터 ‘調和’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이후 ‘調和衆藥’, ‘調和諸藥’, ‘調諸藥’, ‘和諸藥’, ‘調和其性’, ‘協和群品’, ‘和協衆情’, ‘協和諸藥’과 같이 조금씩 다른 함의를 가진 표현을 사용하였다.

‘安和’는 각각의 藥物을 안정시켜 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에 무게가 실려있는 표현으로, 본초학의 초기에는 아직 처방을 구성하는 藥物들의 갈등을 해소시킨다는 의미로 확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초기 문헌에서는 ‘安和’와 함께 解毒의 효능이 밀접한 관련성 아래에서 기술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후로 ‘調和’, ‘協和’, ‘和協’ 등의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처방 내에서의 역할을 분명히 염두에 둔 방제학적인 의미가 있는 표현이다. ‘調和’에 비해 ‘協和’나 ‘和協’은²⁷⁾ 甘草가 보다 능동적으로 여러 藥物 사이에 어울려 화합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7) ‘協’의 사전적 의미로 ‘①합하다. 합치다.’, ‘②잘 어울리다. 和同하다. 和合하다.’가 있음을 볼 때 직접 결합하여 돕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漢韓大辭典(2). 서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9. p.897.)

이밖에 ‘有功’, ‘相協，共爲力而不爭’, ‘使不相悖’, ‘使之不爭’과 같은 표현을 덧붙인 점에 주목할 수 있는데, 調和諸藥의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有功’은 각 藥物의 성질이 애초에 목표로 하는 功效를 거두는 것을 말하며, ‘相協而不爭’, ‘使不相悖’, ‘使之不爭’은 藥物들의 상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 상황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解毒의 작용에 대한 표현을 보면 『名醫別錄』에서 ‘解百藥毒’, 『本草經集註』에서 ‘解諸毒’, 『藥性論』에서 ‘治七十二種乳石毒，解一千二百般草木毒’이라 하여 기본적으로 藥物의 毒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中毒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많은 수의 종류를 지칭한 것으로 볼 때 그 범용성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藥性論』의 표현이 『名醫別錄』의 ‘安和’²⁸⁾라는 표현을 대체한 것임을 생각할 때, 藥物에 대한 調和와 解毒을 매우 유사한 기전의 작용으로 인식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甘味가 緩和시키는 성질을 가진 것과 土의 美德을 갖춘 것을 중심으로 調和의 작용

28) 陶弘景 編. 尚志鈞, 尙元勝 輯校. 本草經集註.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206. “安和七十二種石，一千二百種草”

을 설명하고 있으며, 國老, 宰相 등의 사회적 지위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調和諸藥의 내용에 있어서는 대체로 개별적인 속성을 지닌 藥物들의 갈등을 해소하며 이에 따라 功效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 대체로 解毒과 君, 主, 國老, 宰相 등의 역할²⁹⁾을 통해 감초를 설명한 것으로 볼 때, 처방을 구성하여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타 약물과 달리 감초는 특히 전체 국면을 통솔하는 특수한 위상에서 작용한다고 인식했음을 엿볼 수 있다.

2. 調和諸藥에 관련된 甘草의 특성

1) 甘味

甘味를 지닌 여러 藥物 중에서도 甘草는 그 命名에서도 드러나듯 甘味를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가진다. 그 甘味の 속성도 다른 甘味の 藥物과 달리 지극히 순수하고 두터운 甘味로 일컬어진다. 여러 본초서들에서 甘草의 甘味는 다른 藥物의 그것에 비해 특출하다고 하였으며³⁰⁾, ‘大甘’, ‘最厚’ 등으로 甘草의 특별한 甘味를 언급하였다³¹⁾³²⁾.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正味’라고 표현하였는데, 甘草의 이와 같은 甘味の 특성이 그 자체로 中正한 五味의 성질을 나타냄을 말한다. 『湯液本草』에서는 甘味로 인해 甘草가 升降浮沈의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며 上下, 內外, 補瀉, 和緩을 겸비하여 中道를 다한다고 설명하였다³³⁾. 『神農本草經百種錄』에서도 甘味는 지극한 正味로서 氣의 성격이 바르다고 하였다³⁴⁾.

29) 이들은 제한된 국면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총괄, 종합하는 작용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30) 鄒澍 著. 陸拯, 姜建國 校點. 本經疏證.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p.26. “其色之黃, 味之甘, 迥出他黃與甘之上.”

31) 黃元御 撰. 黃元御醫書十一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347. 『長沙藥解』“備衡和之正味”, 裘慶元 輯. 珍本醫書集成 第一冊.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491-492. 『本草思辨錄』“甘草味至甘, …… 大甘爲土之正味.”, 王味味,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538. 『本草問答』“甘草, 味正甘”

32) 劉洋 主編. 徐靈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58. 『神農本草經百種錄』“甘草之甘爲土之正味, 而有最厚, 故其功如此.”

33) 盛增秀 主編. 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2. 『湯液本草』“蓋甘之味, 有升降浮沈, 可上可下, 可內可外, 有和有緩, 有補有泄, 居中之道盡矣.”

甘草의 작용 또한 이러한 특징적인 甘味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甘味는 기본적으로 緩의 작용을 하는 성질이 있다³⁵⁾³⁶⁾. 緩은 氣의 흐름을 느슨하게, 혹은 늘어지게 하므로 急의 상황을 해소한다. 甘草는 특징적인 甘味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緩의 작용도 역시 강하게 발휘한다³⁷⁾. 『湯液本草』에서는 甘草에 대해 “性緩善解諸急”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緩正氣, 緩陰血”이라고도 언급하였다. 앞서 살펴본 여러 문헌에서도 甘草의 緩의 성질이 急의 상황을 해소하는 데에 활용됨을 설명하였다.

2) 土德

『書經』〈周書洪範〉에서는 “土爰稼穡”이라 하여 土의 德을 ‘稼穡’이라는 말로 설명하였다. 朱子는 이에 대한 주석에서 本性을 중심으로 설명한 다른 四行에서와 달리 土에 대해서는 ‘稼穡’이라는 德의 차원을 말한 점에 주목했는데³⁸⁾, 德은 현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으로서 無形의 이치에 해당하는 本性和 다르다. ‘稼穡’이라는 것도 씨를 뿌리고 거두는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周書洪範〉에서는 나머지 四行의 性을 이끌어 현실 세계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현실적 삶의 중심으로 土를 설명하였다.

현실적 삶을 지향하는 가운데, 土는 나머지 木火金水를 모두 포용하되,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스스로의 성질이나 지위를 갖지 않고, 나머지 모두

34) 劉洋 主編. 徐靈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58. “甘爲味中之至正味, 正則氣性宜正, 故能除毒.”

35) 裘慶元 輯. 珍本醫書集成 第一冊.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91. 『本草思辨錄』“其功能全在於甘, 甘則補, 甘則緩.”

3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88. 『素問藏氣法時論』“辛散, 酸收, 甘緩, 苦堅, 鹹熯.”

37) 鄒澍 著. 陸拯, 姜建國 校點. 本經疏證.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pp.26-27. “特甘性緩, 甘彌甚者, 緩亦彌甚. …… 其用甘草. 卽可謂之緩中. 甘草緩之至.”

38) 金赫濟 校閱. 書傳. 서울. 明文堂. 2015. p.255. 〈周書洪範〉“稼穡, 獨以德言者, 土兼五行, 無正位, 無成性, 而其生之德, 莫盛於稼穡. 故以稼穡言也, 稼穡, 不可以爲性也.”

를 생한다고 설명된다³⁹⁾. 포용할 수 있는 것은 事物들이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 삶의 바탕을 마련해주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스스로의 성질이나 지위를 갖지 않는 것은 사욕을 따라 事物들을 부리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생하는 것은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事物들이 현실에서 자신의 본성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素問五常政大論』의 土太過인 敦阜에 대한 설명에서는 “敦阜之紀, …… 厚德清靜, 順長以盈.”라고 하였다. ‘厚德’은 나머지 四行 및 萬物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바탕이며, ‘清靜’은 사욕을 버리고 마음을 맑게하는 것이다. ‘順長’은 순조롭게 키워나가는 것으로서 萬物을 키워나가 본성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王冰은 이에 대해 ‘다른 事物과 다투지 않으며 躁動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는데⁴⁰⁾, 위와 같이 포용하면서도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德을 설명한 것이다.

甘草는 가장 온전한 土德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일반적인 土의 德을 그대로 적용하여 甘草를 이해할 수 있다. 甘草는 『名醫別錄』에서부터 “爲九土之精”라고 하여 세상의 土 중에서 가장 정미로운 氣를 타고난 藥物로 설명되었으며, 『本草綱目』에서도 “資全土德”이라 하여 甘草가 土德에 완전히 부합함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甘平의 氣味를 비롯하여 色⁴¹⁾, 주요 產地⁴²⁾, 생장사⁴³⁾ 등 기타 여러 가

지 성질들은 모두 五行 중 土의 성질로 귀결됨을 설명하였다.

『周易』 坤卦의 象을 통해 甘草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本草乘雅半偈』에서는 甘草가 “黃中通理”의 德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역시 坤卦의 “含章”하는 土德을 지니고 있어 五味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하였다⁴⁴⁾. 『本草綱目』에서는 朱丹溪의 설명을 인용하여 甘草가 “黃中通理, 厚德載物”⁴⁵⁾하는 君子의 모습이라고 설명하였다. ‘黃中通理’는 세상의 못 이치에 통달한 것으로, 甘草가 病證, 藥物 등 어떠한 事物에 대해서도 대상의 이치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含章’은 아름다움을 머금었다가 때에 맞게 피워내는 것을 말하며, ‘厚德載物’은 두터운 덕으로 萬物을 키워내는 것인데, 모두 甘草가 대상을 그대로 포용하여 다시 그에 맞게 생하는 방식으로 작용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甘草의 氣味 중 氣의 平性도 土의 德의 일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本草의 氣味 중 氣는 사람이 그 藥物을 받아들일 때에 느끼는 氣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甘草의 平은 寒熱溫涼으로 치우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平은 단순히 寒熱 중 어느 한 쪽에 속하지 않는 정적인 중립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甘草가 平하다는 것은 실제로 甘草가 ‘平’을 지향하는 작용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甘草의 平의 의미는 『書經』 <周書·周官>의 “均四海”에 대한 주석에서 “지역[四海]마다 서로 다름에 따라 조절하여 平을 얻는 것을 均이라고 한다”⁴⁶⁾고 한 것, 또 『周易傳義』 <謙>에서 “많은 것을 덜어서 적은 데에 더해주고, 事物의 많고 적음을 저울질하여 베푸는 것을 균등하게 하여 平을 얻도록 한다”⁴⁷⁾

實, 得四氣之全, 其色之黃, 味之甘, 迴出他黃與甘之上, 以是協土德, 和衆氣, 能無處不到, 無邪不祛.”

39) 金赫濟 校閱. 孟子集註. 서울. 明文堂. 2001. p.166. <公孫丑章句上> “愚按, 四端之信, 猶五行之土, 無定位, 無成名, 無專氣, 而水火金木, 無不待是以生者, 故土於四行, 無不在, 於四時則寄焉, 其理亦猶是也.”
 40) 王冰 注.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5. p.377. “土性順用, 無與物爭, 故德厚而不躁, 順火之長育, 使萬物化氣盈滿也.”
 41) 黃元御 撰. 黃元御醫書十一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349. 『長沙藥解』 “土得四氣之中, 四色之正, 四臭之和, 四味之平. 甘草氣色臭味, 中正和平, 有土德焉, 故走中宮而入脾胃.”, 盧之頤. 本草乘雅半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4. 『本草乘雅半偈』 “又云, 青苗紫花, 白毛槐葉, 鹹出於黃中通理之莖, 土具四行, 不言而喻矣.”
 42)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537. 『本草問答』 “雖不生於河南中州, 而生於極西之甘肅, 亦由甘肅地土敦厚, 故生甘草. …… 土氣之厚, 故深長且實也, 雖生於西, 而實得中土之氣.”
 43) 鄒澍 著. 陸拯, 姜建國 校點. 本經疏證.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p.26. 『本經疏證』 “甘草春苗夏葉, 秋花冬

44) 盧之頤. 本草乘雅半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4. 『本草乘雅半偈』 “甘草色味性情, 含章土德, 爲五味之長, 故治居中之腑臟.”
 45) 李時珍 著. 本草綱目(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震亨曰, 甘草味甘, 大緩諸火, 黃中通理, 厚德載物之君子也.”
 46) “四海異宜, 調劑, 使得其平, 是之謂均.”

고 한 것과 통한다. 각 지역[四海]의 서로 다른 특징은 자연히 정해진 것이므로 事物의 본래적 특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저울질한다는 것은 이러한 다름에 근거하여 그대로의 모습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푼다[施]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事物들이 자신의 타고난 성질을 발휘하도록 참여하여 돕는 것을 말한다. 즉, 쫓이던 정적인 중립의 상태이거나, 혹은 산술적인 평균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사물의 다름에 근거하여 사물마다 알맞게 배풀어서 조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甘草의 쫓을 『本草崇原』에서 “氣得其平”이라고 하여 쫓의 작용을 갖추었음을 설명하였다⁴⁸⁾.

甘草의 쫓의 작용에 대한 설명은 조금씩은 낫아스가 다르지만 대체로 토의 작용에 부합한다. 각 사물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은 차별없이 포용하는 토德에 부합하며, 배풀어 돕는 것은 욕심없이 事物을 생하는 것에 부합한다.

정리해보면, 甘草가 지닌 토德은 모든 事物, 즉 病證이나 다른 藥物, 그리고 五臟 등에 대하여 차별 없이, 있는 그대로 포용하는 것, 그리고 사육을 배제하고 事物의 순리대로 그를 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調和諸藥에 관련된 甘草의 작용

1) 解百藥毒

藥物이 病을 치료할 수 있는 까닭은 藥物이 본래 毒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氣味로 말하자면 매우 치우친 氣味를 가지고 있는 것이 毒이라고 할 수 있다. 『素問·湯液醪醴論』에서는 내부의 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毒藥을 제시하였으며⁴⁹⁾, 『素問·藏氣法時論』에서 “毒藥攻邪”⁵⁰⁾라고 한 것에 대해 張介賓은 病

이란 陰陽이 偏勝한 것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치우친 氣味, 즉 毒을 이용해야 하므로 약으로 病을 치료한다는 것은 毒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⁵¹⁾.

藥物의 毒은 애초에 病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藥物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名醫別錄』에서 이 작용을 ‘解百藥毒’이라고 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毒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떠한 특정한 조건⁵²⁾ 속에서 藥物의 치우친 성질, 즉 毒性이 일정한 정도를 넘어 맹렬하게 발현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급박한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甘草가 가진 甘味의 緩性을 활용하여 급하게 작용하는 藥物의 毒氣의 작용을 느슨하게 하여 中毒의 급박한 상황을 면할 수 있다. 이것은 甘草가 解毒에 기여하는 일차적이고 표면적인 기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毒은 藥物이 타고난 성질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毒의 세력을 완화시키는 원리만으로는 解毒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표면적으로 세력을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기전으로 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藥物의 毒의 성질을 온화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解毒이 작용을 단순히 毒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작용으로만 이해한다면 애초에 毒이 藥物로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며, 甘草는 單方을 통해 모든 藥物에 解毒 효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甘草 單方이 모든 中毒을 직접적으로 해소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모든 藥物의 작용력을 제거하는 것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 甘草 解毒에

1985. p.88.

47)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서울, 明文堂, 1999. p.345. “哀多益寡, 稱物平施”에 대한 주석에서 “哀取多者, 增益寡者, 稱物之多寡, 以均其施與, 使得其平.”

48) 張志聰 著, 本草崇原,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8. p.2. 『本草崇原』 “甘草味甘, 氣得其平, 故曰甘平, 本經凡言平者, 皆謂氣得其平也.”

4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49. “當今之世, 必齊毒藥攻其中,”

5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51) 張介賓 原著,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312. “藥以治病因毒爲能, 所謂毒者, 以氣味之有偏也. 蓋氣味之正者, 穀食之屬是也, 所以養人之正氣, 氣味之偏者, 藥餌之屬是也, 所以去人之邪氣, 其爲故也. 正以人之爲病, 病在陰陽偏勝耳, 欲救其偏, 則惟氣味之偏者能之, 正者不及也.”

52) 藥物의 성질이 病證의 성질과 맞지 않는 경우, 藥物의 용량이 病證에 비해 과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藥物 자체가 지극히 맹렬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나, 藥物이 치료 목적에 부합하는 성질 이외에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 毒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대한 『藥微』의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⁵³⁾. 따라서甘草가 수행하는 解毒 작용의 원리를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甘草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에서는 解毒을 빼놓지 않고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甘草의 解毒 작용은 특정 藥物의 毒에 대한 解毒 작용이 아닌, 매우 많은 종류의 약물에 대한 보편적인 작용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는 甘草의 解毒 작용이 어떤 藥物과의 특수한 相制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甘草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

甘草의 解毒에 대해 여러 문헌에서는 대체로 土의 성질을 통해 설명하였는데, 앞선 문헌 고찰 중 『名醫別錄』에서도 ‘九土之精’이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설명되었다. 『神農本草經疏』에서는 甘草가 ‘九土之精’을 얻었기 때문에 毒이 土를 만나면 변화하게 되어 解毒할 수 있다고 하였다⁵⁴⁾.

『本草乘雅半偈』는 ‘幽靜平和’한 성질을 가진 土가 毒을 緩解한다고 하였는데⁵⁵⁾, 여기에서 말한 ‘緩解’는 土의 幽靜하고 平和한 성질로 毒의 성질을 緩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앞에서 말한 氣의 흐름을 늦추어주는 甘味の 緩에 비해 넓은 개념의 緩에 해당한다.

『本草崇原』에서는 土의 성질이 ‘柔和’하기 때문에 마치 事物을 땅에 묻어두고 시간이 지나면 毒이 사라지는 현상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과 같이 甘草가

解毒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⁵⁶⁾. 『神農本草經百種錄』에서는 甘草의 甘味が 지극한 바른 味이므로 甘草가 ‘氣性宜正’하여 解毒할 수 있다고 하였다⁵⁷⁾. 이는 甘味를 말하였지만 緩의 작용보다는 ‘正’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으로서 土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土의 中正한 德에 해당한다.

『本經疏證』에서도 事物의 妍蚩와 美惡을 막론하고 土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으며 다시 土로 돌아가지 않음이 없어 다시 ‘生生之氣’로 변화될 수 있으므로 解毒하고 藥物들을 安和할 수 있다고 하였다⁵⁸⁾. 土가 萬物을 포용하고 다시 生하는 것을 통해 毒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藥物의 毒은 인간의 재배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고 자연의 날 것 그대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天地 사이의 치우친 氣를 받아 中正의 德化를 받지 못하고 생겨난 것으로, 五行으로 말하자면 생성 과정에서 土의 작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 본초서에서 解毒의 원리로 ‘九土之精’, ‘柔和’, ‘正’ 등을 말한 것은, 土의 작용을 받지 못하여 만들어진 藥物의 毒性이 甘草의 土의 성질에 의하여 中和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土德은 萬物을 차별없이 포용하면서도 그윽하고 고요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러한 부드러운 성질로 대상을 편안하게 안정시켜 온화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名醫別錄』에서 말한 ‘安和’도 각 藥物을 포용함으로써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조화롭게 작용하도록 하는 의미이므로 여기에서 말한 甘草의 土德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甘草의 解毒에 대한 이러한 언급을 종합해보면, 甘草의 해독작용은 藥物의 毒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며, 맹렬한 毒의 세력을 緩和하는 동시에 변

53) 吉益東洞 著. 이정환, 정창현 역. 藥微. 서울. 정흥. 2007. p.110. “古語曰, 攻病以毒藥, 藥皆毒, 毒即能, 若解其毒, 何功之有.”

54) 任春榮 主編. 繆希雍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8. 『神農本草經疏』“解一切金石草木蟲魚禽獸之毒者, 凡毒遇土則化, 甘草爲九土之精, 故能解諸毒也.”, 盧之頤. 本草乘雅半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4. 『本草乘雅半偈』“毒性殺厲即以幽靜平和之土緩解之, 毒自降心而退舍焉.”, 張志聰 著. 本草崇原.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8. p.2. 『本草崇原』“解毒者, 解高燄無名之毒, 土性柔和, 如以毒物埋土中, 久則無毒矣.”, 劉洋 主編. 徐靈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58. 『神農本草經百種錄』“甘爲味中之至正味, 正則氣性宜正, 故能除毒.”

55) 盧之頤. 本草乘雅半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4. 『本草乘雅半偈』“毒性殺厲即以幽靜平和之土緩解之, 毒自降心而退舍焉.”

56) 張志聰 著. 本草崇原.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8. p.2. 『本草崇原』“解毒者, 解高燄無名之毒, 土性柔和, 如以毒物埋土中, 久則無毒矣.”

57) 劉洋 主編. 徐靈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58. 『神農本草經百種錄』“甘爲味中之至正味, 正則氣性宜正, 故能除毒.”

58) 鄒澍 著. 陸拯, 姜建國 校點. 本經疏證.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p.26. “土爲萬物母, 凡物無論妍媸美惡, 莫不生於土, 及其敗也, 又莫不歸於土, 化爲生生之氣, 則所謂能解百藥毒, 安和七十二種石千二百種草也.”

화시켜 일반적인 의미의 毒의 발생 기전을 해소시키는 의미가 있어 모든 藥物에 대해 보편적인 解毒의 기전을 나타낼 수 있다. 다만 이 기전은 독자적으로 모든 中毒을 해소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毒의 원리를 따라 解毒의 바탕을 마련해주는 역할로 한정해 보아야 하며, 이러한 역할은 調和諸藥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急食甘以緩之

『素問·藏氣法時論』에서 “肝主春，足厥陰少陽主治，其日甲乙，肝苦急，急食甘以緩之.”라고 한 것을 말한다. 이때의 急이란 氣의 흐름을 빠르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나 실제로 빨라지지 못하는 상태이다. 오히려 마음이 앞서고 실제로는 氣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못한 채 한 곳에 몰리고 막혀서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⁵⁹⁾. 이러한 急이 肝이 주관하는 봄이나 甲乙의 날에 더욱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張介賓은 肝이 將軍之官이기 때문에 그 氣가 急하다고 하였는데, 일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將軍의 특성상 氣의 흐름을 빠르게 만들고자 하면서 急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甘味를 사용하는 것은 甘味の 부드러운 성질로 強急한 肝의 성질을 완화시켜 平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⁶⁰⁾.

『內經』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藥物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으나 후대에 여기에 해당하는 藥物로 주로 甘草를 지목하였다⁶¹⁾. 甘草가 가지고 있는 순수하고 강한 ‘正味’로서의 특수한 甘味の 성질이 정확히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甘草의 甘味가 지닌 緩의 작용만을 취하여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경우에는 ‘急食甘以緩之’라고 하여 급히 치료할 것을 강조한 상황이므로 가장 표면적인 甘味の 작용을 활용한 것이다.

急은 실제로는 오히려 氣가 빠르게 흐르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에 가까우므로, 甘草의 작용도 실제로 氣 자체의 흐름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심리적인 차원에서부터 氣化의 흐름을 다소 느슨하게 조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緩’의 작용이 나타나더라도 氣가 느슨해져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急이 해소되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瀉心火

많은 본초서에서 甘草의 주요 작용의 하나로 瀉心火를 언급하였다. 瀉心火는 본래 李東垣의 內傷病機에서 제기된 개념으로서, 脾胃의 기능이 不足해지게 되어 心火가 그 본래의 자리에서의 정상적인 작용을 잃고 脾를 올라타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瀉心火 하는 데에 甘草를 활용하는 治法도 역시 李東垣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⁶²⁾.

甘草가 瀉하는 心火는 實火가 아닌 脾胃不足으로 인한 虛火에 가까우므로, 일반적으로 實火를 다스리는 苦寒한 氣味の 藥物로 치료할 수 없다. 각종 서적에서는 甘草가 瀉하는 心火를 急의 일종으로 보았는데, 甘草 瀉心火의 작용을 甘味の ‘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⁶³⁾. 心火도 肝과 마찬가지로 五行 중 陽氣가 자라나고 확장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에서 쉽게 急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心火의 발생 기전을 살펴보면 心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인 脾胃가 손상되는 과정에서 心이 도리어 항진된 것이므로, 여기에도 ‘急’의 정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응급 상황의 타개를 목적으로 전적으로 甘味の 緩 작용에 의지하는 ‘急食甘以緩之’와는 다

59) 백유상. 內經 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7. “여기서 급함이란 우리 몸의 기운이 돌아가는 것이 보통보다 빨라지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반드시 氣가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운을 빨리 돌리려고 마음만 앞서고 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혀서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좁은 골목을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지나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형상이다.”

60) 張介賓 原著.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309. “肝爲將軍之官，其志怒，其氣急，急則自傷，反爲所苦，故宜食甘以緩之，則急者可平，柔能制剛也.”

61) 盛增秀 主編. 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8. “肝苦急，急食甘以緩之，甘草”

62) 李東垣 著. 張年順 校注. 脾胃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45. “心火乘脾，須用炙甘草以瀉火熱，而補脾胃中元氣.”

63) 汪昂 原著. 張一忻 點校. 本草備要. 北京. 人民軍醫出版社. 2007. p.7. 『本草備要』“瀉心火(火急甚者，必以此緩之.)”，楊時泰 輯. 本草述鈞元. 上海. 科技衛生出版社. 1958. p.84. 『本草述鈞元』“東垣云，脾胃不足而心火乘脾，火性苦急，賴此緩之. 此火非可以苦寒瀉，即以甘平而和緩者瀉之.”

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瀉心火의 경우 脾胃가 虛弱한 것으로부터 유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甘味の 緩 작용을 활용한 것은 표면적으로 急해진 氣를 완화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瀉心火에 甘草를 활용하는 원리에 대한 본질적인 수준의 고려가 필요하다.

脾胃不足이 원인이 되어 心火가 항진된 상황이므로 이 부분에는 甘草의 土德이 작용하는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心火는 神明을 주관하여 생명을 유지하므로 일정한 율동을 지속하여 항상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때 脾土는 心火가 활동할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해주어 心火가 안정적으로 자신의 일정한 율동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萬物을 포용하고 낳고자 하는 土德이 心火의 율동을 유지하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⁶⁴⁾. 따라서 이때의 甘草의 활용에서는 土德으로 心火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 볼 때, 瀉心火는 火 자체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甘草의 緩을 통해 전체적인 氣化의 속도를 조절하여 결과적으로 火가 풀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考察

1. 甘草의 緩其急과 調和諸藥

1) 甘草의 緩其急의 의미

甘草의 작용 중 앞서 살펴 본 ‘解百藥毒’, ‘急食甘以緩之’, ‘瀉心火’는 甘草의 甘平의 氣味の 작용과 土德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일어나는데, 그 결과 공통적으로 緩其急의 작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協의의 緩其急으로 볼 수 있는 甘味の 緩 작용이 甘草의 土德과 결합하여 廣의의 緩其急의 작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먼저 ‘解百藥毒’은 藥物의 毒性이 일정한 정도를

넘어 맹렬하게 발현되는 ‘急’의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毒氣의 맹렬한 세력을 낮추어주는 甘味の 緩 작용과 함께 毒의 성질 자체를 온화하게 변화시키는 土의 작용이 결합하여 藥物의 中毒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急食甘以緩之’는 臟腑의 氣의 흐름을 빠르게 하고자 하나 실제로는 빠르게 하지 못하고 마음만 앞서 오히려 氣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급히 協의에 해당하는 甘味の ‘緩’의 작용을 활용해 해소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瀉心火’는 脾胃不足으로 인해 항진된 心火를 해소하는 작용이므로, 일차적으로 甘味の 緩 작용을 통해 心火의 急을 느슨하게 하는 한편으로는 甘草의 土德으로 心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결합하여 心火를 瀉할 수 있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세 가지 작용은 전체적으로 急迫한 상황을 緩和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緩和의 방향성은 協의의 緩其急에 해당하는 甘味の 緩 작용에 의해서만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甘草의 緩 작용은 廣의의 緩其急으로 따로 구분해 인식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氣의 흐름을 느슨하게 만드는 協의의 緩其急은 甘草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인 甘味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甘草가 작용하는 현실적인 방향성⁶⁵⁾을 제공해준다. 土의 德은 여기에 더해져서 萬物에 대해 차별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포용하고 그에 맞게 환경을 조성하거나 도움을 주어 대상의 본성을 온화하고 안정적으로 발휘하도록 지향하여 총체적인 甘草의 작용을 완성하는데, 이것이 廣의의 緩其急이다.

앞서 살펴본 『本草述鉤元』에서는 廣의의 緩其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의 ‘緩’은 ‘和’라는 총체적인 결과를 직접 달성하는 효능으로서 廣의의 緩其急의 의미에 해당한다. 甘草의 ‘緩’은 補瀉의 양면을 겸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緩 중에서 瀉의 측면은 私慾을 배제하고 萬物을 生하여 내는

64) 心火가 일어난 상황에 대해 『本草述鉤元』에서는 心은 脾胃의 土를 변화의 원천으로 삼는데 脾胃가 虛하여 心火의 원천이 끊어진 상태라고 하였다(楊時泰 輯. 本草述鉤元. 上海. 科技衛生出版社. 1958. p.84. 『本草述鉤元』“後天陽氣之原出于胃, 雖土以火爲母, 而心火更以土爲化原, 脾胃虛則心火之化原絕, 故母反索救于子以乘脾也.”)

65) 甘草가 가장 온전한 土의 德을 체화하고 있다고 설명되기는 하나, 甘草는 현상 세계의 事物로서 순수한 土德 자체는 아니므로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氣 운동의 차원에서 하나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甘草는 協의의 緩其急이라는 氣 변화의 형식을 통해 土德의 구현을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성질을, 緩 중에서 補의 측면은 모든 것을 차별없이 포용하여 어우러질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는 성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緩其急과 調和諸藥의 관계

여러 본초서에서 표현한 藥物들의 갈등과 부조화의 상황은 藥物들이 저마다의 성질을 조급하게 펼치고자 하나 어루어지지 못하고 막혀있는 것으로 이 또한 '急'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調和諸藥은 이러한 상황에서 甘草의 緩其急이 藥物들에 대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광의이든 협의이든, 緩其急이란 氣의 흐름을 느슨하게 하는 작용을 포함하므로 결국 다양한 事物들의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藥物들이 자신의 개별적 속성을 펼치고자 저마다의 속도로 움직이려는 急迫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속도를 떨어뜨려 동일한 속도로 맞추어 주는 것이다. 이러한 緩其急의 방향성 속에서 土德이 작용하였을 때 調和諸藥의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광의의 緩其急에 포함된 土의 德은 '調和'라는 작용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서 調和諸藥의 작용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때, 甘草의 調和諸藥의 실질적인 특징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緩'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⁶⁶⁾. 따라서 甘草의 調和諸藥은 전체적으로 '緩'이라는 분명한 현실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작용이므로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만능의 調和 작용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 調和諸藥의 의미

1) 처방에서의 緩其急

調和의 의미는 동양에서 "和而不同"⁶⁷⁾으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로 어울리면서도 저마다의 다양한 성질이 왜곡되지 않고 자신의 색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마치 음악에서 여러 개의 음이

하나로 어울리면서도 간섭되지 않고 각각의 音色을 잃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을 말한다. 앞서 甘草의 平性에 대해 논한 바와 같이, 서로 다름을 조화시키고 많고 적음을 균등하게 하는 '平'의 의미도 이와 통한다.

甘草의 調和諸藥도 하나의 처방을 구성하고 있는 藥物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和의 모습을 달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모든 藥物은 각자의 독특한 藥性を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하나의 처방으로 묶어낼 경우 서로 다른 성질로 인하여 예상치 못했던 부조화가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개별 藥物의 성질이 상쇄되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게 된다. 이때, 모든 藥物의 성질을 있는 그대로 차별없이 포용하여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다시 각각의 藥物이 가진 성질을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율해야 藥物의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문헌들에서 나타난 甘草의 調和諸藥의 작용에 관련된 표현으로 "調和衆藥有功", "和諸藥, 相協而不爭", "調和藥性, 使不相悖", "協和", "能協和諸藥, 使之不爭" 등이 있다. 이러한 언급들을 종합해보면, 藥物들의 서로 다른 속성에 의해 나타나는 갈등을 해소하고 각각의 본래 성질을 발휘하여 목표한 功效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甘草의 調和諸藥의 작용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⁶⁸⁾.

앞에서 살펴본 甘草의 緩其急은 調和諸藥의 실질이라고 할 수 있다. 甘草는 처방에 포함된 藥物들의 다양한 개별적 속성들을 포용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이들이 스스로의 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거나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그 藥性を 온화하고 안정적으로 발휘하도록 하여 애초에 기대했던 藥物의 치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개별 藥物에 대한 緩其急

藥物은 그 자체로 치우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66) 물론 緩 자체도 土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土德의 한 단면의 모습에 해당한다.

67) 申泰三 校閱. 論語集註. 서울. 明文堂. 2011. p.115. <子路> "子曰,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

68) 이에 반해, 藥物들의 성질을 억압하고 희석시켜 갈등을 봉합하거나, '平'이 아닌 산술적인 평균치에 기초하여 藥性を 발휘하도록 하는 것으로 調和諸藥을 이해하는 방식은 調和의 본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甘草가 수행하는 緩其急의 실질과도 맞지 않다.

이러한 성질이 매우 극심한 경우에는 알맞은 病證에 활용하더라도 그 성질이 오히려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甘草로 해당 藥物의 성질을 緩和시켜 적절한 효능을 얻는 데에 활용한다.

『名醫別錄』과 『本草經集注』에서 각각 “安和七十二種石，一千二百種草.”，“能安和草石而解諸毒”을 말한 것과 같이 甘草가 개별 藥物들을 ‘安和’시키는 작용을 함은 일찍부터 인식되었다.

또한, 解百藥毒의 작용은 실질적으로 개별 약물에 대한 緩和 작용과 거의 동일한 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⁶⁹⁾. 『本草述鈎元』에서 “解諸味及百藥毒”이라고 하여⁷⁰⁾ ‘諸味’를 붙여 언급한 것은 解毒의 작용이 中毒이라는 특정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藥物의 氣味를 緩和시키는 작용과 사실상 동일한 것임을 보여준다.

개별 藥物에 대한 작용은 ‘急’을 ‘緩’하여 藥物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면에서 처방에 대한 緩和 작용과 본질이 동일하며, 또 처방 전체를 구성하는 藥物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甘草의 調和 작용의 토대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도 큰 틀에서 調和諸藥의 작용의 한 모습으로 포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이 경우를 調和諸藥의 범주로 포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湯液本草』에서는 調和諸藥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정의를 내리면서 개별 약물에 대한 緩和 작용을 調和諸藥으로부터 구분하였다. 기존 甘草의 임상적 용례를 개념적으로 구별해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엄격한 의미 구분을 통해 調和諸藥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개념이 명료해진다.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甘草의 전반적인 특성에 관련된 調和諸藥의 실질에서 멀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3. 調和諸藥의 적용

1) 調和諸藥이 필요한 경우

甘草의 調和諸藥이 매우 광범위한 작용이며 근본적인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나, 모든 病證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調和諸藥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調和諸藥이 필요한 경우는 藥物 사이의 부조화,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藥物 간의 갈등의 상황은 藥物 자체의 성질이 峻烈하거나 藥物의 성질 간의 편차가 큰 경우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湯液本草』에서 小柴胡湯의 柴胡, 黃芩과 人參, 半夏에 대한 調和 작용을 설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⁷¹⁾.

이외에 藥物이 치료하고자 하는 病證의 상황도 藥物의 작용에 있어서의 부조화를 불러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만약 어떠한 病證에서 表裏, 陰陽, 寒熱 등의 편차가 지극히 크거나, 그 시작이 급작스럽거나, 邪氣의 세력이 매우 크다면 전신의 正氣의 흐름도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을 ‘急’이라고 할 수 있다. 藥物의 치료 작용은 결국 臟腑, 經脈의 氣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 전신의 氣가 급한 상황이라면 藥物도 정상적으로 본래의 작용을 나타내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본초서에서도 언급하였는데, 『本草新編』에서는 ‘急病’에서 가장 마땅하다고 설명하였다. 즉, 急病에 주로 필요한 藥物들은 자연히 그 성질이 猛烈한데, 甘草가 이들을 調和시키는 뜻이 있다고 보았다⁷²⁾. 『本經疏證』에서도 전신의 氣가 급박하고 빠름으로[急疾] 인해 病이 된 경우 甘草의 ‘緩’을 통해 調和한다고 하였으며, 그 효과가 나타남이 매우 빠르다고 하였다⁷³⁾.

69) 앞서 살펴보았듯이 解毒의 작용은 藥物의 작용력을 꺾어 버리거나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급하게 나타나는 藥物의 작용을 緩和시켜 안정적으로 자신의 효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70) 楊時泰 輯. 本草述鈎元. 上海. 科技衛生出版社. 1958. p.83.

71) 盛增秀 主編. 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2. “小柴胡, 有柴胡黃芩之寒, 人參半夏之溫, 其中用甘草者, 則有調和之意.”

72) 陣士鐸 著. 本草新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p.37. “但其性又緩, 凡急病最宜用之. 故寒病用熱藥, 必加甘草, 以制桂, 附之熱. 熱病用寒藥, 必加甘草, 以制石膏之寒. 下病不宜速攻, 必加甘草以制大黃之峻, 上病不宜遽升, 必加甘草以制梔子之動, 緩之中具和之義耳.”

73) 鄒澍 著. 陸拯, 姜建國 校點. 本經疏證. 北京. 中國中醫藥

2) 調和諸藥이 알맞지 않은 경우

甘草의 調和諸藥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만능의 調和의 효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해될 수 있으나, 그 실질은 어디까지나 '緩'의 작용에 바탕을 두고 '急'을 緩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방향성에 비추어 알맞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緩'의 폐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調和諸藥이 알맞지 않다.

『湯液本草』에서 '中滿'에 대해서는 甘味로 인해 甘草를 쓸 수 없다고 하였는데, 中焦에서 氣가 정체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甘味가 緩和하는 작용을 유의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⁷⁴⁾. 『本經疏證』에서도 늘어져서 막히고 체한 경우에는 마땅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⁷⁵⁾.

『本草新編』에서도 甘味가 과도하면 '寬緩'한 성질이 과해져서 水穀이 대사되는 속도를 늦추어 瘀滯됨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하였다⁷⁶⁾. 이로 미루어 볼 때, 역시 中焦 脾胃에 停滯가 있는 경우에는 甘草를 사용하여 調和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용량으로 보았을 때 急症에는 甘草를 많이 쓸 수 있으나, 緩症인 경우에는 오히려 虛證이 많은데 이 경우에 甘草의 용량이 많으면 分消시키지 못하여 脹滿을 유발하게 된다고 하였다⁷⁷⁾.

『本草述鉤元』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침을 제시하였는데, 中滿한 경우를 비롯해 嘔家, 酒家와 濕으로 인해 腫滿한 경우에 꺼려야 한다고 하였다. 外感을 풀어주는 解利藥에서도 다른 藥物의 효능을 지나치

게 緩和시킬 수 있으므로 소량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더구나 補藥에서는 막히는 것이 우려되므로 많이 쓸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脾胃氣가 有餘한 경우나 痢疾의 초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⁷⁸⁾.

종합해보면, '緩'의 모습이 나타난 病證에는 많이 쓸 수 없으며, 脾胃가 有餘하거나 中滿, 痢疾 등 脾胃에 停滯가 있는 경우에는 甘草의 '緩'의 성질이 더욱 氣의 흐름을 늦추어 막힐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解利藥의 경우 外感의 急病에 가까우므로 調和諸藥의 작용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나, 다량을 사용하면 오히려 藥力을 약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IV. 結論

甘草의 調和諸藥의 작용의 실질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각종 문헌의 甘草에 대한 언급에 나타난 甘草의 甘味, 平性, 土德, 解百藥毒, 急食甘以緩之, 瀉心火 등 다양한 성질과 작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調和諸藥은 甘草의 緩其急에 의해 일어난다. 廣의의 緩其急은 氣의 흐름을 느슨하게 만드는 협의의 緩和 작용과 함께, 萬物에 대해 차별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포용하고 그에 맞게 환경을 조성하거나 도움을 주어 대상의 본성을 온화하고 안정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土德을 포함한다. 甘草는 緩其急을 통해 기본적으로 다양한 藥物의 작용 속도를 늦추는 방향성을 갖고 움직여 결과적으로 調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기초해 調和諸藥의 의미를 살펴보면, 전체 처방에 대한 緩其急과 개별 藥物에 대한 緩其急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전체 처방에 대한 緩其急은 처방을 구성하는 藥物들의 개별적인 속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여 본래의 효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모든 藥物의 성

出版社. 2013. pp.26-27. “凡一身之氣, 因急疾爲患者, 能調之. 縱弛而阻滯者, 非所宜也.”, “其用甘草. 即可謂之緩中. 甘草緩之至. 而治急疾之病. 著效甚速.”

74) 盛增秀 主編. 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2. “中滿者, 禁用, 經云, 中滿者勿食甘.”

75) 鄒澍 著. 陸拯, 姜建國 校點. 本經疏證.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p.27. “縱弛而阻滯者, 非所宜也.”

76) 陣士鐸 著. 本草新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pp.38-39. “或問甘草乃和中之藥, 攻補俱用, 不識亦有不宜否. 夫甘草, 國老也, 其味甘, 甘宜于脾胃. 然脾胃過受其甘, 則寬緩之性生, 水穀入之, 必不迅于傳導, 而或至于停積瘀滯.”

77) 陣士鐸 著. 本草新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p.39. “用之于急症者可以多, 用之于緩症者難以重加, 蓋緩症多是虛症, 虛則胃氣必弱, 而甘草性過于甘, 多用難以分消, 未免有飽脹之虞.”

78) 楊時泰 輯. 本草述鉤元. 上海. 科技衛生出版社. 1958. p.84. “緣概用恐太緩, 不能達也. …… 繆氏雲, 中滿者忌之, 嘔家酒家諸濕腫滿及脹滿, 鹹不宜服. 諸解利藥中, 宜少用, 恐緩而少效. 即補藥中, 亦不宜多用, 恐戀腸不思食. 脾虛者固宜用之. 若脾胃氣有餘, 與痢疾初起, 皆不可用.”

질을 있는 그대로 차별없이 포용하여 이들이 작용하는 방식을 조절함으로써 갈등과 부조화를 해소하고 스스로의 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거나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그 藥性を 온화하고 안정적으로 발휘하도록 하여 애초에 기대했던 藥物의 치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별 藥物에 대한 緩和 작용은 심하게 치우친 성질을 가진 약물의 작용을 변화시켜 적절한 효능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도 藥物 본래의 성질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질을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 작용은 실질적으로 처방에 대한 緩和 작용과 본질이 동일하므로 이 역시 調和諸藥의 일면으로 볼 수 있다.

甘草의 調和諸藥 작용은 그 실질이 되는 緩其急의 특성상 모든 藥物에 대한 범용성을 나타내며, 한편으로는 그 효능의 실체가 현상적으로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미묘한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본초학적인 효능과 동등한 위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많은 본초서에서 甘草 특유의 범용성에 대해 언급하고, 君主, 國老, 宰相 등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역할에 甘草를 비유하며, 나머지 四行을 포괄하는 土德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특유의 위상을 가진 특성에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調和諸藥 작용을 인식하고 논구하기 위해서는 한의학 특유의 臟象論과 氣味論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나타난 『藥徵』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적 근거 중심의 본초학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는 調和諸藥과 같은 본초의 미묘한 효능은 인식되지 못하여 사장되거나 부정되어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⁷⁹⁾.

본 연구는 甘草에 대한 문헌 언급을 중심으로 調和諸藥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한 것으로서 調和諸藥에 대한 임상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말미에서는 문헌을 참고하여 甘草 調和諸藥의 임상 적용상의 지침에 대해 일부 논급하기는 하였으나, 향후 실증적인 방

법론을 이용해 문헌에 나타난 甘草의 실제 응용 사례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다시 결론을 내려야 임상적인 의미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밖에도 甘草의 효능에 대한 임상적 이해와 활용을 돕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References

1. 裘慶元 輯. 珍本醫書集成 第一冊.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 吉益東洞 著. 이정환, 정창현 역. 藥徵. 서울. 청흥. 2007.
3. 김종현. 脾臟의 機能에 대한 通時的 考察.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4. 金赫濟 校閱. 孟子集註. 서울. 明文堂. 2001.
5. 金赫濟 校閱. 書傳. 서울. 明文堂. 2015.
6. 盧之頤. 本草乘雅半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4.
7.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漢韓大辭典 (2). 서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9.
8. 唐迎雪. 淺談甘草的調和性能. 荷澤醫專學報. 1990. 2(2).
9. 陶弘景 編. 尚志鈞, 尙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10. 劉洋 主編. 徐靈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11. 李成義. 甘草“和諸藥, 解百毒”辨析. 甘肅中醫. 1996. 9(2).
12.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서울. 明文堂. 1999.
13. 백유상. 內經 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4. 徐大鵬. 對方劑學調和諸藥概念內涵的探討. 北京中醫雜誌. 1993. 6.
15. 盛增秀 主編. 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6. 申泰三 校閱. 論語集註. 서울. 明文堂. 2011.
17. 楊柏燦, 潘穎宜. 甘草“調和”的影響因素探析. 中成藥. 2013. 35(1).

79) 이와 유사하게 여타 藥物과 다른 층위의 미묘한 작용을 보이는 본초 효능의 사례로 李東垣의 風藥 개념이 있다.

18. 楊柏燦, 潘穎宜. 甘草在調和藥效中的應用 - 甘草調和實質探析之二-. 中藥與臨床. 2012. 3(2).
19. 楊柏燦, 方瑜. 甘草在調和藥物性能中的應用. 上海中醫藥雜誌. 2012. 46(6).
20. 楊時泰 輯. 本草述鉤元. 上海. 科技衛生出版社. 1958.
21.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22. 王冰 注.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5.
23. 王松, 郭曉東. 《傷寒論》中部分方劑不用甘草原因探究. 湖南中醫雜誌. 2015. 31(2).
24. 汪昂 原著, 張一昕 點校. 本草備要. 北京. 人民軍醫出版社. 2007.
25. 李東垣 著, 張年順 校注. 脾胃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26. 李時珍 著. 本草綱目(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27. 任春榮 主編. 繆希雍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8. 張介賓 原著.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8.
29. 張志聰 著. 本草崇原.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8.
30.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4.
31. 陣士鐸 著. 本草新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32. 鄒澍 著. 陸拯, 姜建國 校點. 本經疏證.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33. 韓學杰, 張印生 主編. 孫一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 연구원출판부. 1985.
35. 黃元御 撰. 黃元御醫書十一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36.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13. 서울. 大星文化社. 1995.